

선생님이 추천하는 5월에 읽기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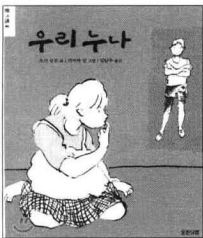
백화현 _ 관악중학교 교사



《가만 있어도 웃는 눈》
이미옥 지음 | 창작과비평사 |
174쪽 | 값 6,000원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내는 가족들 |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걸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무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 5월이 오면 유난히 짙어지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질문들에 이 책의 저자 이미옥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견뎌주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듯 합니다. 새록이네는 한강변의 17층 아파트에서 살며 도시 중산층의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실직과 유학, 그로 인한 세모꼴 반지하 집으로의 이사, 이어지는 엄마의 실직으로 인해, 가난과 전혀 낯선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록이와 초록이,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또 그것을 지키고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넉넉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만 있어도 웃는 눈’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면 누구라도 볼 수 있을 만큼 쉽게 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씹으면 씹을수록 오묘해져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엄마와 아빠도 함께 읽고, 둘러앉아서 서로의 사랑도 확인해 보고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도 나눠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누나》
오카 슈조 지음 | 웅진닷컴 |
178쪽 | 값 7,000원

장애인의 일상적인 아픔을 담은 이야기들 | -우리 누나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누나가 있어서 좋았던 일은 한 번도 없다. 바보 멍청이에다 못생기고 똥보다. 열일곱 살이나 먹었는데 키는 5학년인 나 정도밖에 안 되고, 코는 납작하고 눈은 조그맣고, 빈말이라도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 -《우리 누나》중에서

이 책의 저자 오카 슈조는 오랫동안 특수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여기 실린 여섯 작품들은 그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보석 같은 단편들입니다. 그는 어설피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장도 없습니다. 막 수술을 시작한 외과의사처럼 그의 표정은 차갑고 손놀림은 정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심장은 사납게 요동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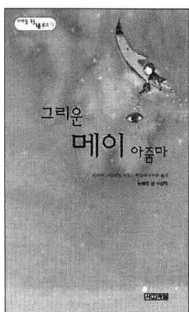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그 동안 장애인 문제를 다뤘던 여러 작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동안의 것들은 대부분 특별한 한 장애인의 성공담이거나,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일반인이 너무 쉽게 그와 친해져 오히려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나 여기 실린 <우리 누나>, <잇자국>, <멍>, <목걸이>, <귀뚜라미>, <위싱턴 포스트 행진곡>에는 아주 평범한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아픔과 상처, 또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몸부림이 치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일반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반성하게 합니다. 이 책은 웬만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거리가 많고 문학적 완성도도 높은데다 단편들이어서 독서 수업 교재로 쓰기에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들께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
프란체스코 다다모 지음 |
중앙 M&B | 218쪽 | 값 8,000원

열세 살, 소년노동운동가의 고통스러운 삶의 이야기 | 이 작품은 소년노동운동가로 살다 열세 살에 귀한의 총에 맞아 숨진 실존 인물 이크발 마사흐를 모델로 하여 씌어진 소설입니다. 파키스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의 빚 때문에 네 살 때 카펫 공장에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몇 번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깊은 지하 낡은 물탱크에 갇히기도 하고 발목이 쇠스랑에 묶인 채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곳을 탈출하여 인권운동가 예산 칸의 도움으로 친구들을 구해내고, 전 세계에 아동 노동력 착취 실태를 고발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 1995년 그의 나이 열세 살, 부활절을 맞아 잠깐 파키스탄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들렀을 때, 그는 카펫 마피아들이라고 짐작되는 귀한들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이 책은 그저 맘 편히 읽을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지은이는, 때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고, 차마 고통스러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암울한 세계를 바짝 우리 코 앞에 들이밀며, 똑바로 직시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진실을 알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라고 물으면서 말이죠. 어린이날을 맞아, 나만, 혹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주변의 아이들,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운 메이 아줌마》
신시아 라일런트 지음 | 사계절 |
128쪽 | 값 6,000원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 | 사랑은 한 존재를 얼마나 가치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절절히 그 답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 그리고 서머는 일반적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말을 잃고 살아가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메이 아줌마와 오브 아저씨 역시, 늦도록 자식 하나 없고 집 한 칸 없는 데다, 한 사람은 집 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몸에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비쩍 마른 체구에 관절염까지 앓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의 영혼 깊숙이 빛나고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낼 수 있는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이 아줌마는 그의 작은 미소, 작은 손짓 한 번만으로도 주변을 부드럽고 찬란하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아줌마에게 발견되어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서머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별님보다 더욱 많은 빛을 내뿜게 되었답니다.

작품이 발표된 후, 뉴베리 상, 보스턴 글로브 혼북 상, 미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청소년 작품' 과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 우수작' 을 모두 휩쓴 이 작품은 그럴 만한, 아니 그 이상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중학생 이상 누구에게라도 꼭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